인터넷 위문편지 시대

트렌드 Trend

31사단 신병교육대

육군 31사단 신병교육대대의 인터넷 카페 '충장부대 훈련병 이야기' 관리를 맡고 있는 정훈장교 유선영 중위〈가운데〉가 부대원들과 함께 카페에 올라온 사연들을 검색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사랑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보내는 26번째 편지. …고된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는 마무리 과정을 밟고 있을 내 작은애. 아무리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아들이기를 바란다. 2006년 9월 13일 밤에 엄마가"

예나 지금이나 군 생활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나 애인·친구들이 보내온 위문편지 한 통이면 다시 힘을 얻는다. 고단함을 잊게 하고 그리움을 달래게 하는 '위문편지'의 자리를 이제 '인터넷 카페 글'이 대신하고 있다.

카페 글 하루 100여건 쏟아져

지난달 17일 개설한 육군 31사단 신병교육대대 인터넷 카페 '충장부대 훈련병 이야기'에는 매일 100여건의 위문편지가 쏟아지고 있다.

중대별로 ▲교육사진 ▲부모·친구·애인 편지 ▲훈련병 편지 ▲질문과 답 등 4개 코너로 구성된 이 카페는 개설 한 달 만에 회원 수 1천50여명에, 일일 방문자 수만도 1천200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노심초사'가 담긴 사연과 애인·친구들의 사랑과 우정이 담긴 사연들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부대 측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연과 편지들을 인쇄해 매일 훈련병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훈련병들은 거의 매일 가족과 친구·애인을 글로 만날 수 있게 된다. 답장은 부대 측에 의해 카페 '훈련병 답장' 코너에 올려져 가족·친지들이 그리운 이의 훈련 생활을 볼 수 있게 한다.

일주일마다 사진 등 업데이트

'IT강국'에 걸맞게 군부대에까지 급속도로 확산한 인터넷이 장병과 가족, 애인들과의 소중한 소통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연은 예상외로 훈련병의 애인이나 친구보다 부모들의 '자식 사랑' 글이 많다.

특히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 되는 교육사진에 자식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내 아이도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는 항의성 글을 보내는 극성 부모들도 많다는 게 부대 관계자의 말이다.

카페는 훈련병 이름을 입력하면 훈련병의 소대 소개와 함께 훈련병의 얼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보고 싶은 얼굴 찾기'라는 프로그램도 자체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다.

'육군 BEST 카페'로 뽑혀

카페는 개설된 지 한 달도 못돼 지난 8일 '육군 BEST 카페'로 뽑혔고,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도 급상승 랭킹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때문에 부대 측은 매일 쏟아지는 사연에 정신 없이 바쁘다. 카페 관리자인 31사단 신병교육대대 유선영 중위(28·정훈장교)는 "하루에 100건이 넘는 사연이 올라온다"며 "5주간의 신병 교육기간 동안 훈련병 1인당 평균 4통의 위문편지를 받지만, 카페 개설 이후 평균 1통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 31사단도 대대별로 2~3대의 PC가 설치돼 e메일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구절구절 편지지에 써온 위문편지는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리 '가'-'나' 점수차 줄었다

수능 모의평가 분석

지난 6일 치러진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결과 수리 '가', '나'의 점수 차가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27일 모의수능의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와 도수분포 등을 발표하고 응시생들에게 성적 통지표를 배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리 영역의 경우 최고점 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나'형이 142점으로 '가'형의 141점보다 1점 높았다. 6월 모의평가 때에는 '나'165점, '가'150점으로 15점이나 차이가 났었다.

수리 '가', '나'의 점수 차이가 줄어든 것은 평가원이 선택과목 간 점수 차를 줄이기 위해 '나'형을 쉽게 출제해 표준점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수리 '가'의 최고점자(141점)는 10만9천467명의 응시자 가운데 2명에 불과했고 139점 이상을 받은 응시생도 681명에 그쳤다. 반면 수리 '나'의 최고점자(142점)는 40만7천847명의 응시자 가운데 7천262명이나 됐다.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리 '가'형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등 21곳이며 서울대 20% 등 상당수 대학들이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난이도가 유지될 경우 '가'형 선택자가 유리해질 수 있고 수리 '가'와 '나'에서 같은 표준점수를 받았을 때 백분위의 경우 '가'형이 훨씬 유리해 자연계 학생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점수 활용지표 및 수리영역 가중치 등을 살펴 '나'형 선택에 따른 불리함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모의수능 영역별 만점 표준점수

과목		6월모의평가 최고점	9월모의평가 최고점(A)	2006 수능 최고점(B)	(A)-(B)
언어		144	128	127	1
수리	수리(가)	150	141	146	-5
	수리(나)	165	142	152	-10
외국어(영어)		148	134	142	-8
사회 탐구	윤리	82	70	71	-1
	국사	80	72	66	6
	한국지리	67	70	77	-7
	세계지리	69	75	68	7
	경제지리	68	72	70	2
	한국근현대사	77	76	65	11
	세계사	76	72	63	9
	법과사회	67	78	77	1
	정치	66	75	68	7
	경제	69	73	67	6
	사회문화	74	67	73	-6
과학 탐구	물리	72	69	64	5
	화학	72	74	73	1
	생물	67	75	69	6
	지구과학	72	70	65	5
	물리Ⅱ	70	77	65	12
	화학Ⅱ	71	83	75	8
	생물Ⅱ	70	83	73	10
	지구과학Ⅱ	72	72	66	6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는 27일 오후 광주시민회관에서 '2006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갖고 유공 범죄예방위원 표창 및 한마음 장학금 수여식 등을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경찰청 추진 본격화

태스크포스팀 구성 지시

전남지방경찰청은 27일 행자부가 광주지방경찰청 신설 계획안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홍영기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광주청 신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인력을 선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홍 청장은 또 "인사 동요가 없도록 인사계에서 광주·전남청간 인사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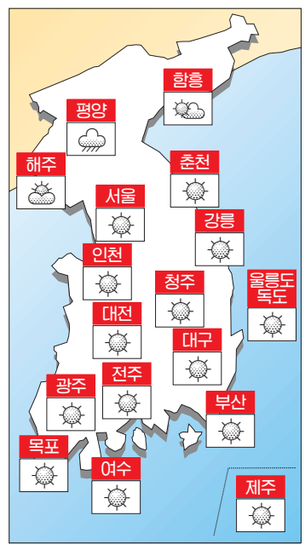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름이 가기 싫은가 봐

9월 28일 (음 8월 7일) ◇전국날씨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조금 끼겠다.

광 주	구름조금	15~25℃
목 포	구름조금	16~25℃
여 수	구름조금	18~24℃
완 도	구름조금	15~26℃
구 례	구름조금	13~28℃
해 남	구름조금	12~26℃
장 흥	구름조금	11~25℃
고 흥	구름조금	14~26℃
순 천	구름조금	13~26℃
영 광	구름조금	14~27℃
진 도	구름조금	14~28℃
전 주	구름조금	15~27℃
남 원	구름조금	10~26℃
정 읍	구름조금	13~26℃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04:54 17:45 썰물〈10:09 22:50
여수 밀물〈12:01 23:52 썰물〈05:15 18:05

▲해뜸 06:24 ▲해짐 18:21 ▲달뜸 11:45 ▲달짐 21:1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금)	30(토)	10/1(일)	2(월)	3(화)	4(수)
날 씨						
최저/최고	15/24	14/26	14/25	14/25	14/24	15/24

교통난 야기 도심집회 금지

경찰청, 일선서에 지시

경찰이 심각한 교통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토록 하는 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현장조치 강화지시'를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하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지시에서 대규모 집회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대도시 도심지역에 심각한 교통불편이 우려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금지 통고를 하는 방안을 사안별로 적극 검토토록 했다.

경찰은 또 시위대의 도심행진을 허용한 경우에도 신고사항에 따라 차로를 준수토록 하고 만약 시위대가 이를 어겨 교통소통에 방해가 될 경우 1차 경고 후 경찰관과 전·의경을 동원해 차로 준수를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사진 채증 등을 통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도심 집회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비난이 주최 측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에 쏟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지시 하달 배경을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학법인 개방형 이사제 도입 외면

정관변경 전남 全無·광주 2곳 뿐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한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돼 가지만 전국 사학법인 가운데 12% 정도만이 개정법을 수용, 정관 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 사립학교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남지역 사학법인 가운데서는 단 한 곳도 정관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에서는 단 2곳만 정관변경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845개 초·중·고 사학법인 가운데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 신청한 법인은 102곳(12%)에 머물렀다.

전남지역 53개 사학법인 가운데서는 단 한 곳도 정관을 변경하거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28개 사학 법인만이 임원 인적 사항을 공개했으며, 이사회 회의록 공개 법인은 9곳에 그쳤다.

광주지역 28개 사학법인 가운데서는 단 2곳 만이 법인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임원 인적 사항을 공개한 곳은 4곳,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서울=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엉망

일반쓰레기와 섞어 버려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는 쓰레기 절반 가까이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재활용 쓰레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정철웅 등 3인)은 지난 5월과 9월 광주 5개 구에서 869.1kg의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의무적으로 재활용을 해야하는 종이류·유리류·캔류·플라스틱류·음식물 쓰레기 등이 45.2%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플라스틱류가 전체의 15.7%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 쓰레기(12.9%)·종이류(10.4%) 등이 뒤를 이었다.

재활용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 곳은 시장상가(56.3%)였고, 음식점(50.8%)·단독주택(46.3%)·빌딩(39.2%)·아파트(35.4%) 등의 순이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플라스틱류 중에서도 특히 비닐이 많았다"면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빠른 포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